

“소상공인 은행”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기 사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자금과는 다르게, 운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매출이 줄어 정부 지원을 받겠지만, 반대로 순간 매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나 뜻하지 않은 계약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운영 자금을 3천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상품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어 5천만 원 정도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당장 상품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택배비, 부자재비까지 포함하여 운영비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한다든가, 지급보증보험을 이용해 결제 플랫폼과의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신용이 낮은 상태에서 순간 판매 매출액이 갑자기 높아졌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사업(결제) 환경이 많이 좋아져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그 밖에 대형 이커머스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다음 날 즉시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서비스만 봤을 때는 ‘사업이 잘 되고 주변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필요 자금이 즉시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회적 서비스만으로는 계속된 매출 상승에 꾸준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을 받기까지는 당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몇 주 심사를 기다리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에 이미 판매(주문)를/을 자의적으로 끊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어쩌면 고객들로부터 사업 운영 상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슈가 결국 사업이 잘 되고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축소를 해야만 하고, 휴업을 하거나 폐업까지 맞게 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사회적 손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저는 “소상공인 은행” 설립/운영 정책을 제안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상품 판매에 호응을 얻게 되어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실시간 매출 내역을 우선 신뢰”하여 “소상공인 은행”에서 상품 매입(상품 도매)처에 자금을 대신 집행(* 소상공인 업체의 접수를 받고 몇 시간 내 또는 하루/이틀 내 자금 집행)한다든지, (정부, 소상공인 은행이 보증하는) 긴급 보증서를 발급해 거래 업체로부터 상품을 우선 공급받고, 주문 건 결제와 상품 발송이 완료된 후 “7~10일 이후에 결제 플랫폼 업체로부터 판매 자금이 들어온 다음 상품 거래(도매) 업체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게 되는 신뢰 장치(긴급 보증서)가 존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은행”에서 지원 업체로 긴급 자금이 실행되고 난 즉시, [결제 플랫폼 업체]로 들어온 “대량 주문 건에 대한 취소를 못하도록 강제”한다든지, “소상공인 은행에서 허가한 ‘주문 건 일정액 부분만 취소’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제 시스템 구현”을 통해 사업자의 사기성 긴급 자금 취득이 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은행에서의 몇 시간 지연 출금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업체의) 대규모 자금 필요 부분이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소상공인 은행”이 며칠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자 직접 신고를 통해 대출금의 70% 정도를 즉시 회수하고, 실행되었던 기존 운영 자금에서 30% 정도만 즉시 대출금으로 차후 인정해 기업이 시간을 두고 약간의 원리금을 갚으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 자금 지원) 장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소상공인 업체가 성장하는데 자금에 따른 걸림돌이 사라질 것이며, “소상공인 은행”은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을 약간이나마 얻게 될 것이고, (특히 중요한 지점은) 소상공인 기업 실패율을 성장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국가, 사회 운영에 힘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단발적 정책 자금 지원으로는 소상공인 업체의 장기적 운영을 도울 수 없습니다. 확실한 기관 (소상공인 은행)을 두어 필요 자금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형태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식”적 도움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성장한 업체는 결국 지원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될 테고, 성장의 방법을 알게 되어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려 커나갈 것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은행(* 정부, 지자체, 대기업 연합 출연 지원)”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